세례자 요한의 설교 (/ 장)

1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2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어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 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바로,

4 세례자 요한이

5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 분의 신발 끈을 들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 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를 받으시다

9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 오셔서, 요르단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 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1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12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부 시몬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다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21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22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분께서는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2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24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25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자,
26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다

29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30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에게 그녀를 데려갔다.

31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서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32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3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릴리 여행을 떠나시다

35 아주 날 새벽 어둠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36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37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39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40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라."

42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43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네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
다만, 사제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진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2장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

1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머무시는 소문이 퍼지자,
2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빈틈없이 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3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고 있었는데,
4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머무시는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 침상을
달아 내려 보냈다.
5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네 죄를 용서받았다."
6 몇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7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8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째서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9 중풍 병자에게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 침상을 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쉬우냐?

10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서 중풍 환자에게 말하였다.

11 "네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12 그러니 그는 일어나 즉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13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그 뒤에 길을 지나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 분을 따랐다.

15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자리하였다. 이는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16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17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

23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밭길 사이를 걸어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일행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 중에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24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였는지 성경에 읽은 적이 없느냐?"

26 예수님께서는 대사제 아비아달 시대에 다윗과 그 일행이 집에 들어가, 누구에게나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27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28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3장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1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2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3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4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악을 행하는 일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말을 못하였다.

5 그분께서는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폈다. 그 손이 다시 성하였다.

6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즉시 헤롯의 지지자들과 서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

군중이 몰려와 모여들다

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8 예루살렘, 이두메에서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9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알지라도 얼이 열이나 함께 하시려고,
당신께서 하신 시험에 한 것을 아직 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10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의 사람들은 누가
그곳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11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분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1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13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곳에 나아갔다.
14 그곳에서는 열 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였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6 이렇게 예수께서 열 둘을 세우셨으니,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이셨
시고,
17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이셨던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18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열혈당원 시몬,

19 또 예수님을 달아놓기 위하여 머리 처리하였다

예수님과 베일계획

20 예수님께서 강으로 가셨다. 그러자 온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다.

21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치셨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2 또 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일제불에 들렸다." 고 하고, "그는 여기 우두머리의 힘을 빌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고 하였다.

23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만 나라가 갈라지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25 만 집안이 갈라지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26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말하여 갈라지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27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28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앙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의 에이게 된다."

30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었다." 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친척들

31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32 그 둘레에 무리가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34 그리고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35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4장

시 빠라는 사람의 비유

1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뭍에 그대로 있었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3 "자 들어보아라. 시 빠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의 테두리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5 어떤 것은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9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10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주어진다.

12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여 응답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 빼라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13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닫을 수 있겠느냐?
14 씨 빼라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빼라는 것이다.
15 말씀이 길에 빼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16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빼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17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이
원인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18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빼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여러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의
씨를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0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빼라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등불의 비유

2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켜다가 함지
속이나 평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22 감추인 것은 드러나기 위려이고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있다.
23 귀 있는 자는 들을 지니라 하더라."
24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가 되어
주는 만큼 되어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25 정말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겨자씨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26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27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이 터져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낟알이 여문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겨자씨의 비유

30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할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지.
그러나 땅에 뿌리면, 자라서 어떤 채소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33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셨다.
34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혼자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어 주셨다.

풍랑을 가라앉히시다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 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에 남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37 그 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에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차도
록 되게 되었다.
38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는데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에게,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여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내 것을 내놓아? 아니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들은 그 사람들의 사로잡힌 자도 알려왔다 "도대체 어떤이
누가서기에 사람과 도시까지 파괴하는가?"

5장

마귀들과 돼지 떼

1 그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2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3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더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4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5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제 몸을 치고 하였다

6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여,

7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간청하니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8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0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 마침 그곳 산등성이에 돼지 떼가 떼지어 있었다

12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13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제 아라비아 사람 세사 세사 도시를 향해 바람을 게리 달려, 도시의 바깥 쪽으로 왔었다

14 세사를 치서 이들의 말와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의 우두 일의 일어남을 보려고 왔다

15 그들은 예수께 여기 와서 들렸던 사람, 즉 레기온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만 겁이 났다

16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와서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우두 일이 일어남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17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제발 그 고장에게 떠나가십사고 빌기 시작하였다

18 그리하여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빌었다

19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20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모든 일을 데가폴리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다. 많은 군중들이 그분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머무셨다.

22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엎드려 간곡히

13 "제 어린 딸이 지금 심하게 아파요.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그 아이가
병에서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빌었다.
14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시기 위해 일어나셨다. 많은 군중이 그 뒤를 따르며
밀려들었다.
15 그 가운데 열두 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16 그 여자는 오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자신 것을 모두 쓸어버렸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17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18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19 예수님께서는 즉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20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셨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어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21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펴보셨다.
22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2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라."
24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셔서 집 안에 피리 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35 "하늘의 주인이시여, 그리고 이제 스승님을 가르치실 일 맡으셔 여기 있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6 예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귀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37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38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39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너희가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1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42 그러자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43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6 장

사자굴에서 의사를 치료하시다

1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2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3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5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6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열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7 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8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시고,

9 선발은 한 사람은 두 발은 개인의 왕라고 이르셨다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거나 하나 길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11 혹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여 주는 증거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12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13 그리고 많은 악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14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라고 말하였다

15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16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다." 라고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17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18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외쳐왔다

19 헤로디아는 그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들어 주는 터이었다

21 그러던 어느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장관들과 갈릴래아의 원로들을 궁전에 잔치를 베풀었다

22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23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24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어머니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러주다

25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26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27 그래서 임금은 곧 형리병을 보내어,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하였다. 형리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28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29 그 뒤에 오천의 제자들의 소원을 들어 주어, 그의 기도를 하나의 위안의 소원이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 음식을 먹을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온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하였다.
34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배운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5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36 그러니 마을들을 둘러보시어, 먹을 음식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37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이백 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9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어, 모두 두 둘씩 짝을 지어 자리를 잡게 하셨다.

40 그때에 사람들은 백 명씩, 오십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41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을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42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43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44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오천 명이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45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46 그들과 작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다
47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뭍에 계셨다
48 역풍을 맞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4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 출현한 줄 착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50 모두 그분을 보고 놀라 혼비백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51 그러고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크게 놀라 넋을 잃었다

52 그들은 빵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전도사들의 병자들을 고치심

53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 전도사들 뒤를 따랐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55 그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실려, 그분께서 어디로 오셨다는 소문이 나는 대로 사방에서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56 그리고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어디를 들어가시든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이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7장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1 예수 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 몰려와서,
2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즉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3 본디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4 장터에서 들어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으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5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7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9 또 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10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고 말하였다.
11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로 하느님께 빌어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였다고 한다.
12 그러자 어부들과 이웃들에게 이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13 시리아 이렇게 시리아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시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14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5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16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7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19 그것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가서 뒤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20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21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22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23 이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24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타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거기에서 얼려지고 있어서 [illegible]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다.

25 사람들이 들은 말을 듣고 아픈 사람이 눈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 분은 여러 사람에게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계셨는데, 자기 발에서 아픔을 풀어게 하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27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줌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29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악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악귀는 나가고 없었다.

귀 먹고 말 어눌한 이를 고치시다

31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32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어눌한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33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34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로마는 그의 귀가 멀고 혀가 굳어 바가 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대중에게는 말씀하지 않으고 그들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나
그럴수록 부탁하시는 그들은 더욱더 소리 높여 말하였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들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8장

사귀 영을 쫓아내다

1 그 무렵에 다시 안식일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가르쳐 들려 알려주시다

2 "저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것이 있으리 말이다

3 게다 이들을 통해서 손으로 들려보내진 일에 스라질 것이니, 저가 가진 지혜에는 옛 이에 은 사람들도 있다"

4 그러나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 빵을 가져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는지?" 하고 대답하였다

5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으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일곱 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주었다

7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 나누어라고 하셨다

8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먹었더니, 일곱 바구니가 되었다

9 사람들은 대략 사천 명 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서,

10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사이들의 토론을 오지하다

11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며 시험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온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12 예수님께서는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보지 못할 것이다."
13 그러고 나서 그들을 내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14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16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17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째서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18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나누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주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두 광주리다." 하고 대답하였다.

20 밤 안로 가로 사제 영이에 제사장들을 데려온, 밤 고기를 몇 마리나 가져 가셨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2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빵 사이사이의 큰 것 이를 고치시다

22 그들은 벳사이다로 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23 그분께서는 그 눈먼 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채,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24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5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니, 그가 똑바로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26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면서, "이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27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들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29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31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불러 말리기 시작하였다.
33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여 꾸짖으셨다.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5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말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36 목숨을 얻은 사람은 목숨을 가질 것이다

37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38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39 참새 두 마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싼 새라고 해 봐야,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들을 뒤죽박죽 하실 것이다

9장

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2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3 그 옷이 몹시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되었다.

4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5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 지내며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7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8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자은 자에게 다시 살아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기리기리 서로 물어보았다

엘리야의 사명

11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1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13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귀신 하나에게 사로잡힌 영을 내쫓으시다

14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의 주변에 둘러서서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15 마침 주변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 달려들었다.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17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18 아이 아버지 그 왕이 아이를 사로잡기 위해 거주하는 곳과 그리고 아이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졌다. 그래서 스승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옆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는지 알아라?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20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뒹굴었다.

21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22 저 영이 자주 아이를 끄집어내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무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게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24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25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더욱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저희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26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27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28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분께 하느,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끝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29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30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31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도 사흘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가장 큰 사람

33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머물렀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34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35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끝자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36 그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리시고 그들 한가운데 세우신 뒤,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37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38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러지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41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42 나를 믿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43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안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둘 가운데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4)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45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6)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47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48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소금

49 "모두 불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50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10 장

혼인과 이혼

1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2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셨다.

4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5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명령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6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남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0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물었다.

11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12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13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14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놔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15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16 그러고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주셨다

하느님의 나라와 재물

17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합니까?" 하고
물었다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19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는 말아라,
도둑질하지는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는 말아라, 협잡하지는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20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릴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1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져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3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24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애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 어렵다!

25 바늘 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재물과 보상

28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2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0 현세에서 백배를 받지 않는 것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

에게 맡길 것이고, 세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맡길 것이다.
31 그것에 관해서는 놀라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때가 이르면 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32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고,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당신께 장차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33 "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넘겨
34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출세와 섬김

35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37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아시는 진리를 사람과 하실 수 있으며, 제가 받은 세례를 사람과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39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40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41 나머지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42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저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기세를 부린다.

43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4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리코에서 눈 먼 이를 고치시다

46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함께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라는 눈 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47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8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49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50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51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셨다.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52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셨다.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11장

예루살렘의 멸망하지다

1 그들이 예루살렘 곧 유다 온 전의 예언자에게, 바벨론의 가제의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의 지라 들을 보내어

2 말씀하셨다 "너희 왕은 성제로 가라 그곳에 들어가서 아주 어리신 한 작은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3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면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다.' 하고 대답하라."

4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풀었다.

5 거기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왜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6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가게 하였다.

7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8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9 그리고 앞서 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10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11 아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안전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나가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13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려 있는가 하여 가까이 가 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아무도 영원히 너는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15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은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뒤엎으셨다.
16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17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18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주님이 그의 그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쳐다보시면서 말하셨다.

19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20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22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 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빌어라. 벌써 얻었다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5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26)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삼다

27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학자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28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테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31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테니,
32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면 주님이 오히려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33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15장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궈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세 주고 멀리 떠났다.

2 포도 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3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4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깨고 모욕하였다.

5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이었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는데,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이었다.

6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여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7 그러나 소작인들은 '바로 상속자다.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8 그들은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9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10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1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니."

12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13 그 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몇 사람을 내보내,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14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신분에 따라 편견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지요, 정당하지 않은지요?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15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 보여주오."

16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부활 논쟁

18 바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19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들의 후사를 일으켜야 한다.' 고 기록을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20 그런데 만약 형제가 일곱이었는데 맏아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1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22 이렇게 일곱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23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2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25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26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27 그분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계명

28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스승님. '그 분은 한 분 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34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에는 아무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35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36 다윗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37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메시아

38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거리의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오래도록 기도를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41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렙돈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라르타스 한
닢인 셈이다
43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모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13 장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재난의 시작

3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예수님께 물었다.

4 "저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나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7 그리고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지겠지만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8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여러 법정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시험가 내를 맞을 것이다 또 시험은 나 때문에 충성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증언할 것이다

10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 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12 형제가 형제를 죽기 위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여,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13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재난

14 "읽는 자는 잘 새겨 깨닫기 바란다 멸망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 읽는 이는 알아들어라 — 그 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15 옥상에 있는 이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꺼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16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17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18 그 일이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19 그 무렵의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신 음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이시리라

21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혹은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23 그러나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미 말해 두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날

24 "그 무렵 환난이 끝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 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 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28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언덕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곧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 있으라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33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책임을 맡겨 각자에게 일거리를 주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35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36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14장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1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2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절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3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 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4 몇 사람이 분개하여 서로에게 말하였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5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6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7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8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9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 한 일은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요나가 예수님을 바라보다

10 예수 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요나 이스가리옷이 예수님을 넘겨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11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을 팔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12 무교절 첫 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려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성읍 안으로 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라

14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15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차려 놓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서 차려라."

16 제자들이 떠나 성읍 안으로 가게 되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17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18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19 그러자 그들은 근심하여 차례로 "혹시 저희입니까?" 라고 물어 말하였다.
20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는 열 둘 중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찍는 사람이다.
21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서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22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을 드리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 내 몸이다."
23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것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포도주의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 마시지 않겠다."
26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베드로가 장인을 오른쪽으로 잡아 일으키시다

27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오늘 밤에 모두 넘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28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29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넘어져 버린다고 하셔도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30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할 것이다."

31 그러자 베드로가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겟세마네에 도착하시다

32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후,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뇌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34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슬픔으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리시어, 하늘 아버지께 그 시간이 지나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어,

36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제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37 그러고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38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39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그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려앉아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41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42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잡히시다

43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열 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44 그 배신할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고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이미 신호를 일러두었다.

45 그가 바로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46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47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48 예수님께서 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나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는 말이냐?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러신 것이다."
50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말몸으로 달아난 청년이

51 어떤 청년이 맨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52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죄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53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54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안뜰 깊숙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55 수석 사제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56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에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왔지 않았지 진이다

57 저희는 거기서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기로 하였다

58 "우리는 제 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59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60 그러자 대사제가 한 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61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62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저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63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한가?"

64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선고하였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65 이때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 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시종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다

66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을 때 대사제의 하녀가 와서,

67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펴보며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68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바깥 뜰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69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패이오."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70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고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래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71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를 덧붙이고 욕설하기 시작하여,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72 그러자 곧 두 번째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15장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1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로마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2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들의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묻자, 그분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3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였다

4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은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5 예수님께서는 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6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청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고 하였다

7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자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8 그래서 군중은 몰려가 자기들에게 늘 요청하듯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9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10 그는 수석 사제들이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1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 대신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13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거듭 외쳐 말하였다

14 빌라도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로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15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다

16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17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18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19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일으켜 예수님께 절하였다.

20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21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22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이다.

23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자지할 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25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그분의 죄명 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이라고 쓰여 있었다

27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28) 그리하여 '그는 죄인들 사이에 하나로 헤아려졌다' 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2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욕하였다 "허허!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31 수석 사제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여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

32 우리가 보고 있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보시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숨을 거두시다

33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깔려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외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하느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35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르네." 하고 말하였다

36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 막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찾아왔어. "자, 일어나라 너희 그를 세례가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37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그때에 성전 휘장이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39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말하였다

40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있었다

41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요셉이 묻히시다

42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즉 안식일이었으므로,

43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44 그는 명망 있는 의회의 위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는가 물었다

45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 주었다

46 요셉은 아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16 장

부활하시다

1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2 그리고 주간 첫 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3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 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4 그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아니 그 돌이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아주 컸다.

5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보니, 흰 옷을 입은 어떤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6 청년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7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8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떨림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

9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 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맨 먼저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내신 여자였다.

1.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12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길에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14 마침내, 열 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살아나신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은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17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18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며, 곧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승천하시사

19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마르코 복음서의 짧은 끝맺음

20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셨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간략히 이야기 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의 주로 퍼져나가게 하셨다 아멘.